화순농협 '내부 조직장 화합 한마당'

화순농협(조합장 이형권)은 최근 농협 구례연수원에서 '내부조직장 화합한마당'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이날 교육은 대의원 및 임원을 비롯 작목반장·농가 주부모임 회장 등 2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순농협 경영 활성화 ▲농협 조직의 역할과 기능 ▲조직장 책임과 의무 등을 주제로 실시됐다.

이형권 조합장은 "조합원 및 조직장 상호 간 화합을 도모하고,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활성화를 위해 화합 한마당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구례군 실버산업 내년 중점 육성

구례군이 실버산업육성과 관광인프라구축을 내년도 군정 중점 시책으로 선정했다.

서기동 구례군수는 지난 1일 열린 제149회 구례군의회 정례회에서 "내년에는 실버산업 육성과 체험형 관광 인프라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 한 뒤 "고령화 사회에 맞춰 생명체험대학과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 건강 장수마을 육성 등 실버복지 특구지역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군수는 또 "사찰과 온천을 연계한 관광개발에 주력하겠다"며 "전통한옥 민박 마을과 지리산 세계명차 박물관 건립, 야생화 테마공원과 섬진강 수변 개발, 지리산 곤충전 개최 등 자연 친화적이고 특색있는 생태체험 관광자원확충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순창군 주택 671동 개량사업 완료

순창군이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창군은 올 초부터 대대적인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전개해 현재까지 불량주택 25동 중 10동을 개량했고 15동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빈집정비대상 90동 중 80동을 철거했으며 671동의 지붕개량사업은 완료했다.

군은 내년에도 108동의 농촌 빈집을 정비하는 한편 불량주택 37동을 개량 하는 등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 주거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홍식기자 hslee@

해남 황토인삼 고소득 예약

평당 연간 순익 1만원
쌀 농사보다 4배 많아
산이면등 200ha 재배

전남 최대 인삼재배지로 부상하고 있는 해남지역 농민들이 밭에서 수확한 인삼을 손질하고 있다.

"6년 만에 수확한 인삼을 전량 한국인삼공사가 수매해 평당 1만 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인삼이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부상하며 최근 수확을 마친 해남군 산이면 일대 인삼 재배농민들의 얼굴이 활짝 펴졌다.

해남군 산이면 박병주(47)씨는 지난달 16일 1천800여평 밭에서 6년근 인삼 4천250㎏을 수확, 1억8천여만원의 조수익을 올렸으며 산이면 박홍식(47)씨도 550평에서 5천230만원의 조수익을 올렸다.

시설비와 토지 관리비 등 초기 투자비와 인건비를 감안하더라도 연간 순수익이 평당 1만원에 달해 쌀농사보다 4배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허신욱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 담당은 "해남 인삼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황토밭에서 생산돼 최고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며 "인삼 주산단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펴고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남이 주산지인 겨울배추의 과잉재배로 인한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서는 인삼 등으로의 작목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인삼이 해남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육성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초기투자비용이 평당 2만5천원에서 3만원이 소요되는데다 한번 재배하고 나면 20년동안 연작을 할 수 없어 자금 여력이 없는 농민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인삼재배기술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지적이다.

농민들은 "인삼이 고소득 작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초기 부담이 커 쉽사리 재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군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해남군은 산이·화산면 등 63 농가가 200ha에서 인삼을 재배, 전남 최대의 인삼 생산지로 떠오르고 있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함평 나비·곤충엑스포 준비 순조

대회장 시설 기공식 이어 북경 올림픽 홍보 돌입

세계 유일의 곤충을 주제로 한 환경 엑스포인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엑스포'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함평군은 지난 10월19일 부터 함평읍 내교리 일대 21만평 부지에 나비·곤충 엑스포 대회장 시설 인 주제관과 전시시설, 야외관람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다. 〈사진〉

군은 지난달 24일에는 2008북경 올림픽의 홍보마케팅·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국안광고그룹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 대규모 중국 관광객 유치 발판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엑스포 홍보에 돌입했다. 또 이석형 군수는 지난달 27일 호주 캔버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정부연합(ALGA) 주관 지역개발 포럼에 참석, 나비축제와 나비·곤충엑스포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함평군이 캔버라 컨벤션센터내에 설치한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엑스포' 홍보관에도 방문객들이 줄을 이어 외국 관광객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나홍채 (재)함평 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 사무총장은 "'미래를 만드는 작은 세계' 라는 주제로 치러질 나비·곤충엑스포는 2008년 4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45일 동안 열리게 된다"며 "이기간 동안 200여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 방문이 예상돼 직접적인 수입만 약 237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강진군에 전통 '된장마을'

군동면 신기마을 9억 투입 메주공장 등 갖춰

강진군에 전통 '된장마을'이 조성된다. 〈조감도〉

강진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군동면 신기마을에 9억원을 들여 메주공장과 발효실, 체험장 등을 갖춘 된장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마을은 90년대 초부터 전통 방식으로 메주와 된장 등을 생산, 농외(農外)소득을 올려왔으며 이번에 현대식 설비를 더한 된장 특화마을로 탈바꿈하게 됐다.

군은 800여평 부지에 160여평 규모의 2층짜리 공장을 건립, 작업장과 메주 발효실, 기계실 등을 갖추고 대형 항아리 200여개를 놓을 수 있는 장독대 등도 만들계획이다.

공장 가동과 운영 등은 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결성된 강진메주영농조합법인이 맡는다.

군은 된장공장 등이 건립되면 메주와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 매년 50t의 전통장류를 생산, 연간 5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농산물 서울 직판 싸고 해남 기관간 불협화음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해남 농수특산물 직판행사를 놓고 해남군내 유관기관간 불협화음이 빚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달 28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청 광장에서 열린 '땅끝해남 향토 농수특산물전'에는 군내 농협과 어촌계, 수산물가공업체들이 참여했으나 해남수협과 축협은 참가하지 않았다.

해남수협측은 ▲재정적 손실이 예상되고 ▲군이 수협을 홀대했으며 ▲군수 치적을 위한 선심성 행사라는 이유를 들어 불참했다.

이에대해 농협과 군 관계자는 "다른 시·군 수협은 생산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물 판촉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해타산을 따지고 사소한 것을 문제 삼아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강진군 녹차테마파크 사업 부지 '헐값 매각' 특혜 논란

강진 녹차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강진군은 대구면 일대 160만평에 녹차테마파크를 민자로 조성키로 하고 지난 3월 서울 D기업과 350억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군은 이 일대 군유지 138만평을 감정평가를 거쳐 지난 4월 평당 2천500원꼴인 35억여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강진군은 D기업이 서류상 외국인 기업으로 급조한 H산업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참나무 단지도 감정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헐값 매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군은 지방재정법상 제조공장 등 직접 투자부지를 제외하고는 군유지 수의매각이 불가능하자 지난 4월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인 H산업에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초 군의회에 보고했던 투자기간도 2008년말에서 2012년으로 대폭 늘어난데다 투자 미이행시 안전장치라 할 수 있는 환매(還買)조건 등도 MOU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김용호 의원은 "매각된 군유지에는 60여만주의 표고버섯용 참나무가 있고 환산하면 최소 69억원에 달한다"며 "99년부터 이곳에 투자한 임목 관련 사업비만도 15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강진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 업체가 96%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기업을 만들어 수의계약을 한 것"이며 "군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대로 따랐을 뿐 헐값매각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